

보험계 동정

● 재무부 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2월27일 재무부 장관에 홍재성(55세) 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신임 홍장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재무부 대통령 경제비서관, 재무부 1차관보, 관세청장, 외환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3월4일에는 재무부 차관에 백원구 관세청장을 임명했다. 백차관은 증권, 보험, 금융을 모두 거친 금융통으로 알려져있다.

● PC통신망 이용한 정보 제공

안국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부회장 손경식)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국통신의 PC통신망(HITEL)을 통해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안국화재의 대리점을 비롯한 한국통신의 하이텔 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회사 소개, 보험 상품 안내, 구비 서류 안내, 사고 처리 안내, 안국 가입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정보 온라인 시스템이다.

● 국제사 창립 46주년 기념식

국제화재해상보험(주)(사장 이경서)는 지난 2월1일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갖고 10·20년 장기근속 직원과 대리점주, 모집 사원 등 50명을 표창했다.

● 보험민원 감소 추세

보험감독원이 발표한 92년도 보험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92년도에 접수한 보험민원은 4,160건으로 91년도보다 343건(7.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영역별로는 생명보험이 1,380건, 자동차보험이 2,243건, 일반 손해보험이 53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보험금 및 지급금에 대한 산정 및 지급 지연 1,445건(34.8%), 책임여부 결정 907건(21.8%), 상해 및 장해 등급 적용 464건(11.2%), 보험 모집 369건(8.9%),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196건(4.7%), 횡·유용 등 비위 147건(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의무보험 가입률 저조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률이 76%,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의 제조·판매·사용자가 들어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은 61%, 골프장·스키장·승마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이 가입해야하는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은 42%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한국 창조에
적극 참여합시다.

소방계 동정

● 내무부 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2월27일 내무부 장관에 이해구(56세)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이장관은 경기 안성 출신으로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서울시경국장, 치안본부장, 경기도지사, 안기부 1차장을 역임했으며, 13·14대 의원이다.

● 소방검사 조정

서울시소방본부(본부장 한금중)는 지난 3월16일 소방검사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5만4천5백13개의 소방검사 대상 건물중 90.6%에 해당하는 5만3천8백89개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호텔, 지하상가, 백화점, 공연장 등 화재시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다.

● 소화기 기증 행사

전남 여천소방서에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소화기 158대와 소화기 받침대 160대를 지난 2월26일 여천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소방서와 원거리(30km)에 있는 79개 마을에 소화기 2대씩을 기증했다.

● 물자 절약 앞장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3월 3·4일 공직자 및 가족 200여 명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품 등을 가져와 교환했다.

화합 동정

● 성남소방서 최우수 소방서 선정

성남소방서(서장 김명현)는 내무부에서 전국 1백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92년도 소방활동 종합 평점에서 전국 최우수 소방서로 선정되어, 최우수 소방서기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제도는 소방홍보 실적 등 7개 항목 18개 사항 20개 분야를 평가하여 1년간 화재 예방 및 소방홍보 활동 추진 실적이 뛰어난 소방서를 선정, 표창하는 것이다.

● 도어록 비상 해정장치 개발

남원소방서 용성과출소 소양섭 소방사는 도어록 비상 해정장치를 고안, 실용실안 등록을 마쳤다.

이 장치는 극장이나 고층아파트, 지하유형업소 등의 비상구에 설치된 도어록을 비상 해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지기를 이용해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방화문이나 방범문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화재시 인명 대피는 물론 소방대의 진화작업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방홍보위원회의 개최

내무부는 지난 3월9일 여주군 가남면에 소재하는 방재시험연구소(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에서 국민의 불조심 생활 의식의 정착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소방홍보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홍보위원회의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시 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 건설품질관리 세미나 개최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3월 4일 전국 건설회사 및 관리설계사무소 실무담당자 1백명을 대상으로 건설품질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암상가 아파트의 붕괴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품질 시험의 엄격한 시행을 필요로 함에 따라 건설부로부터 건설품질시험 대행자로 지정받은 방재시험연구소가 건설공사시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설품질 시험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시험을 건설업계 실무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 청주우암아파트 사고 조사

협회는 지난 1월 7일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중에 건물이 완전 붕괴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우암아파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고 조사는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친 현장 관찰, 시료시험, 탐문 및 문헌 조사를 토대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사고 조사는 협회의 전문 기술요원과 첨단 시험장비를 사용해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의 피복 두께 등에 대해 건축법 적용 기준에 따라, 구조재의 철근 배근 간격 등은 건축학회의 적용 기준에 의한 시험 분석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 한차원 높은 사고 조사로 인정되었다.

● 직원 농산물 판매 전개

협회는 지난 2월26일 1층 강당에서 범 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따라 대구지부에 근무하는 김인숙양의 과수원에서 생산한 사과를 직송, 250여 상자를 판매하였다.

● EML기법 독자 개발

협회는 화학공장에서의 대규모의 화재 폭발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피해를 예상하여 보험회사에서 적정 보유량을 판단할 수 있는 “예상 최대 손실액” 즉 EML(Estimated Maximum Loss)의 평가방법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 전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규모 화학공장의 보험을 인수할 때 객관적인 EML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보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 “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사내복지기금” 설립

협회는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요구에 내실화를 기하고, 소득 분배의 형평에 대한 불만 해소와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사내복지기금”을 설립, 지난 1월 20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